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주체궂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주체궂다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주체궂다

완성된 이름

주체궂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주체궂다

한눈에 보는 기록

뜻

처리하기 어려울 만큼 짐스럽고 귀찮은 데가 있다.

요약 연대표

표기	19세기	20세기	현재
주체궂다	-	-	-
주체궂다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처리하기 어려울 만큼 짐스럽고 귀찮은 데가 있다.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5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3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주체굿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처리하기 어려울 만큼 짐스럽고 귀찮은 데가 있다.



주체굿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주체굿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쥬체굿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주체굿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쥬체굿- 문헌 수록 표기	—	—	—	—	●→	—
주체굿- 문헌 수록 표기	—	—	—	—	—	●→
주체굿-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쥬체굿다

19세기

- 주체궂다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3종

쥬체궂-, 주체궂-, 주체궂-

↳ 주체궂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주체궂다’의 옛말인 ‘쥬체궂다’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 말의 구성과 어원

‘쥬체궂-’은 짐스럽거나 귀찮은 것을 능히 처리함을 뜻하는 명사 ‘쥬체’에 그러한 상태가 심함의 뜻을 더하는 형용사 파생 접미사 ‘-궂-’이 결합한 것이다.

↘ 표기와 소리의 특징

근대 국어 이후 ‘주’와 ‘쥬’, ‘체’와 ‘체’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아 표기가 섞여 쓰이면서 20세기에 ‘주체궂-’이 나타난다. 현대 맞춤법에서 소리대로 적도록 함에 따라 20세기에 ‘주체궂-’으로 표기하게 되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 뜻과 쓰임

‘주체궂-’의 ‘주체’는 짐스러움, 귀찮음을 뜻하여 명사 ‘주체’의 의미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 문헌 속의 주체궂다

전체 용례 5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주체굿-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주체굿-

출처 1880 한불사전 588

용례 01

66 문헌 용례

주체굿다[周置亂].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주체굿-, 주체굿-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주체굿-, 주체굿-

출처 1934 조선일보 8월 12일 3면

용례 02

66 문헌 용례

걱정이가 북정고개서 송장을 여페 끼고 올 때 송장이 주체구진 생각에 그리할까 하다가 봉학
이의 말을 듯고 고만 두고온 것을 서림이가 이야기로 듯고 재미있는 일이라고 걱정을 부추
겨서 구경 갖다 노케 되었는데.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4 조선일보 8월19일 3면

용례 03

66 문헌 용례

『네가 진천으루 갈 테냐』 『형님 주체굿지만 데려다주시우』.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8 조선일보 2월 8일 7면

용례 04

66 문헌 용례

『우리는 차차 형편을 보가며 자리를 옮기드래두 주체구진 안식구들만은 먼저 이천 광복산으
루 보내두는 것이 조흘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하니.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체궂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주체궂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주체궂다의 뜻과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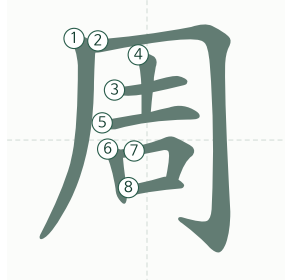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周

뜻·음 두루 주

총 8획 · 부수 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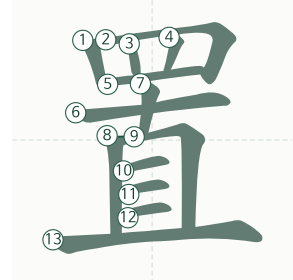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周/

置

뜻·음 둘[措] 치

총 13획 · 부수 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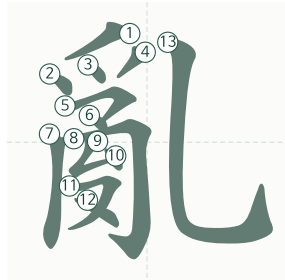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置/

亂

뜻·음 어지러울 란

총 13획 · 부수 乙



hanja.wordrow.kr/한자/亂/